

18세기 張漢喆의 『漂海錄』을 통해 본 海外體驗*

김 경 옥**

- I. 머리말
- II. 표류민 장한철과 『표해록』의 구성
- III. 항해와 표류 -濟州島에서 虎山島까지-
- IV. 장한철 일행의 해외체험
- V. 맺음말

I. 머리말

장한철의 『표해록』은 1770년 12월 25일부터 1771년 5월 8일까지 제주도 선비의 표류경험을 기록한 글이다. 이 자료는 1959년 서울대 제주도종합학술조사단의 鄭炳昱에 의해 발굴되었다. 1961년에 정병옥은 『표해록』의 원문과 해제를 학계에 처음 소개하였고, 1979년에 국역서를 출간하였다.¹⁾ 그러나 이 시기 장한철의 『표해록』은 조선시대 제주도 사람들이 바다에서 겪은 모험담 정도로 인식되었다. 장한철의 『표해록』이 연구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초창기 『표해록』 연구는 ‘紀行文學’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었다.²⁾ 이 연구는 『표해록』의 문학적 성과와 의의를 규명하면서 동시에 『표해록』이 인문과학과 해양지식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

* 이 글은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감성”(2012년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협정연구소 국제 학술대회, 2012. 9. 21.)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재원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7).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鄭炳昱, 「표해록: 원문과 해제」, 『인문과학』 6(연세대 인문학연구원, 1961); 鄭炳昱 역, 『표해록』(범우사, 1979).

2) 吳賡錫, 『한문기행연구 - 장한철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4).

다. 이후 1990년대에 장한철의 『표해록』은 ‘海洋文學’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인식되면서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³⁾ 이 연구는 지금까지 대륙문화의 성격규명에 있어서 많은 업적들이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해양문화의 성격규명은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표해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연구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장한철의 『표해록』 연구는 주로 국문학 전공자들에 의해 검토되어왔다.⁴⁾ 그 결과 『표해록』은 ‘해양문학, 서지학, 설화집, 풍류기담’ 등 다소 제한적인 범주에서 분석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장한철의 『표해록』은 ‘역사·인물·선박·해로·항해술·천하관’, ‘동아시아의 海島諸國’, 그리고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섬 주민들의 해양지리’ 등에 이르기까지 18세기 제주도 선비의 해박한 지식이 담겨있다. 따라서 ‘표류·표류민·표해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 전공자들에 의해 다각도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장한철의 『표해록』을 분석하여 ‘항해와 표류’, ‘해난구조’, ‘표착지에서의 생활’ 등 18세기 장한철의 해외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표류민 장한철과 『표해록』의 구성

1. 장한철과 승선자 28인

장한철의 호는 鹿潭, 본관은 海州이다. 그는 해주장씨 제주도 入島祖 張一就의 7세손으로, 북제주군 애월리에서 張次房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

3) 尹致富, 『한국해양문학연구 -표해류 작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2).

4) 최근 장한철 『표해록』 관련 연구는 윤일수, 「만강홍에 나타난 장한철 표류담의 계승과 변이」 I, 『한민족어문학』 28(한민족어문학회, 1995); 尹致富, 「장한철의 표해록과 한문단편의 관련양상」, 『고소설연구』 2-1(한국고소설학회, 1996); 김봉옥·김지홍 역, 『옛 제주인의 표해록』(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1);懸解堂 역, 『그리운 청산도』(한국학술정보, 2006); 鄭民 역, 『탐라문건록, 바다 밖의 세상』(휴머니스트, 2008); 한창훈·한주연, 『제주선비 구사일생 표류기』(한겨레아이들, 2008); 김지홍 역, 『표해록』(지식을 만드는 지식클래식, 2009); 진선희, 『張漢喆 『漂海錄』의 多聲性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 등이 있다. 주로 연구논문보다 다양한 형태의 국역서가 출간되었다.

서 조실부모하여 仲父인 雙梧堂 張重房의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1770년 10월, 장한철은 鄉試에서 장원하였다. 이 때 鄉里의 父老들이 한양에서 실시하는 會試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였고, 제주도 3읍 관아에서는 과거 응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며 격려하였다. 이에 장한철은 鄉試에서 합격한 바 있는 金瑞一과 함께 進士試에 응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770년 12월 25일 장한철과 김서일은 육지로 출항하는 商賈船⁵⁾에 승선하였다. 당일 제주 상고선 승선자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1770년 12월 25일 제주 상고선 승선자

구성	인원	승선자
沙工	1	李昌成
格軍	9	兪昌道, 金順起, 金次傑, 高得成, 鄭寶成, 柳一春, 李星彬, 金壽起, 李福日
商人 ⁶⁾	15	姜才裕, 金才完, 梁允夏, 李道元, 朴恒元, 金福三, 李得春, 高福泰, 梁允得, 李友成, 李春三, 李大方, 金必萬, 金順泰, 張元起
陸商	2	白士廉, 金七白
書生	2	張漢喆, 金瑞一
합계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琉球 虎山島 漂着 29명 • 朝鮮 靑山島 漂着 21명 사망, 8명 생존

- 5) 고광민(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연구위원)에 의하면, 商賈船은 일명 ‘긱배’와 동일하다고 한다. 즉 흑산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긱배’가 확인되는데, 긱배란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오가며 産物을 교환해 주는 선박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섬은 높은 산이 중앙에 입지하여 토지가 협소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흑산도 주민들은 1년에 평균 3개월분의 식량을 수확하였다고 한다. 부족한 식량은 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농산물로 교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섬 주민들의 물물교환은 배(船)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섬 주민들은 선박을 보유할 만큼의 재력은 없었다.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며 물물교환을 주도하였던 선박이 바로 ‘긱배’였다.
- 6) 장한철의 『표해록』에 등장하는 표류민은 총 29명(장한철 포함)이다. 표류선이 商船이었던 만큼 상인이 17명으로 가장 많이 승선하였다. 장한철은 『표해록』에 ‘상인’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즉 ‘商人’과 ‘陸商’이 그것이다. 아마도 장한철은 제주도 상인과 육지 상인을 구분하여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장한철의 『표해록』(3종: 원본·전사본·인쇄본)에 등재되어 있는 상인 명단을 비교해 본 결과 오류가 발견되었다. 즉 장한철의 『표해록』(원본)에는 총 17명의 상인이 수록된 반면, 전사본에는 8명만 기재되어 있었다. 아마도 원문을 移記하는 과정에서

앞의 <표 1>에서 보듯이, 장한철이 승선한 배는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며 장사하는 商船이었다. 승선자는 모두 29명이었다. 이 가운데 상인이 17명(5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沙工을 포함하여 뱃사람이 10명(34%), 그리고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동승한 장한철과 김서일 등이었다. 장한철은 1775년 1월 濟州道科에 급제하여 제주도 大靜縣監과 강원도 歙谷縣丞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⁷⁾

2. 『표해록』의 체재와 구성

장한철의 『표해록』은 2차례 작성되었다. 하나는 1770년 12월 장한철 일행이 琉球國 虎山島에서 표류생활을 할 때 작성한 것으로, 일명 『漂海日錄』이라 칭한다. 다른 하나는 1771년 5월에 장한철이 고향 제주도에 귀환하여 작성한 『표해록』이다. 그러나 처음에 작성한 『표해일록』은 장한철 일행의 2차 표착지인 청산도에서 소실된 것으로 전해온다. 현전하는 장한철의 『표해록』은 2종이 있다. 하나는 국립제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原本이고, 다른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轉寫本이다.⁸⁾ 2종 모두 필사본으로, 수록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원본은 도입부에 “歲庚寅之十月 余魁鄉試 鄉之父老……”라 하여 장한철이 제주도 鄉試에서 장원하는 대목부터 시작한 반면, 轉寫本은 “耽羅之漢孛山 卽前劫之瀛洲也”라 하여 제주도의 입지환경과 絶島民의 애환을 서술하고 있다.⁹⁾ 아마도 전사본의 경우 후대에 移記하는 과정에서 누

명단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7) “戊寅年命弘文提學李潭, 科次濟州道科試券, 依甲申例, 取姜鳳瑞、張漢喆、金慶會等三人, 并賜第”(『영조실록』 권124, 영조 51년 1월 30일); 정병욱, 『표해록 해제』, 『표해록』(범우사, 1979), 12쪽.

8) 장한철의 『표해록』 原本과 轉寫本, 그리고 인쇄본(연세대 인문과학연구원 편)을 비교해 본 결과 도입부 첫 단락부터 차이가 있다. 다만 장한철이 약 4개월 동안 바다에서 체험한 표류여정은 동일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전사본의 경우 후대 사람에게 의해 도입부가 가필된 것으로 보인다. 전사본의 규모는 1冊 60張이며, 無界, 無魚尾, 12行 20字, 가로 21cm, 세로 27cm 등이다. 본고는 『표해록』(『인문과학』 6,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원, 1961)을 참고하였다. 현재 장한철의 『표해록』은 여러 종류의 국역서로 출간되었다. 대체로 초창기 『표해록』(정병욱 발굴)은 원본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출간된 『그리운 청산도』(현해당 역, 한국학술정보, 2006)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군가 가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70년 12월 25일 장한철 일행이 제주도를 출항하여 1771년 5월 고향에 귀환하기까지의 표류여정은 동일하였다. 장한철의 『표해록』은 크게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있다.

<표 2> 『표해록』의 구성과 내용

번호	구성	년.월.일.	내용
①	出港背景	177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70년 가을, 鄉試 壯元 • 鄉里 父老들이 進士試에 응시하도록 권유 • 제주도 3읍 관아에서 과거 응시 경비 지원 • 동료 김서일과 함께 과거 응시 결정
②	航海 漂流 漂着	1770. 12.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商賈船에 승선 • 노어도에서 1차 표류
		1770.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구국 호산도에 표착
③	海難救助	1771.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海賊船의 습격
		1771.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난구조 →안남국 高船 →항해
		1771. 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한철 일행과 안남국 상인의 갈등 →下船
		1771.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류: 제주도 →흑산도 →소안도(2차표류) →청산도(2차표착)
④	歸還	1771.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류민 일행: 청산도 →제주도(行)
		1771. 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한철: 남당포(강진) →서울(行)
		1771.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한철: 서울(도착) →과거응시 →낙방
		1771.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한철 제주도(귀환)
		177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류민의 무덤을 찾아 弔問 • 客과의 대화를 나누며 『표해록』 마무리

위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장한철의 『표해록』은 크게 ①출항배경, ②항해·표류·표착, ③해난구조, ④귀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표류과정은 月日別로 기재되어 있고, 주된 내용은 날씨(흐림과 맑음), 바람(방향과 속도), 파도(높이와 빛깔), 海路(水流), 선박(항해), 표류민(동정) 순으로 서술되어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장한철이 뱃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예컨대 뱃사람들이 들려주는 항해 시 금기사항이라든가, 장한철이 地理書와

9) 전사본의 경우, 제주도를 ‘亂世의 축복받은 땅, 治世에 버림받은 땅’이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제주도 선비가 한양에서 실시하는 과거에 응시하려면 적어도 1천리 바닷길을 건넌 다음, 또다시 육로로 900리를 가야하는 絶島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野話를 통해 스스로 터득한 ‘동아시아 海島諸國의 인문환경’, ‘항해체험(海路, 指南鐵, 老人星)’, 그리고 표착지에서 ‘표류체험(무인도 생활, 해적과의 만남, 안남국 상인의 해난구조, 청산도 주민들의 구호활동)’ 등이다. 장한철 『표해록』의 공간구성은 조선의 제주항을 출항하여 1차 표착지인 유구국의 호산도 표류체험에 집중되어 있고, 2차 표착지인 청산도에서의 표류생활은 매우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Ⅲ. 항해와 표류 -濟州島에서 虎山島까지-

1. 제주출항과 기상변화

1770년 12월 25일 아침, 수평선 너머로 해가 솟아오를 즈음에 장한철은 제주도 商賈船에 승선하였다. 남풍이 불어오자, 배는 북쪽의 육지를 향해 출항하였다. 그런데 출항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날씨가 흐려지면서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물결을 따라 흘러갔다. 장한철은 멀리 ‘붓끝’ 같기도 하고, ‘돛대’처럼 보이는 섬을 발견하였다. 이에 장한철이 손으로 섬을 지목하며 “저 火脫島¹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제주에서 얼마나 떨어져있는가? 화탈도에서 육지까지 몇 리나 되는가?”라고 질문하였다. 그러나 사공은 뻔히 바라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이때 옆에 있던 뱃사람 고득성이 이르기를, “본래 선상에서 손으로 섬을 지목하지 않고, 또 뱃길이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습니다. 또 배에서 죽을 쑤는 것 또한 꺼리는 풍속인데, 이는 밥이 지어지는 형상을 보고 뱃길의 편안함과 어려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항해 중 뱃사람들의 금기사항을 알려주었다.¹¹⁾

제주 상선은 어느덧 추자도 인근 해역을 지나고 있었으며, 날씨는 더욱 흐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장한철이 사공에게 이르기를, “바다를 건너는 일은 몹시 위험한 일인데, 하물며 오늘은 날도 이미 저물었고, 바다도 가히 끝이 없는데, 어찌하여 楸子島에 배를 대어 순풍을 기다리지 않는가?”라고 책망하였다. 이에 뱃사공은 “직선 항로를 가지 않고 추자도로 돌아가는 것은 시일을

10) 화탈도는 추자도 남쪽 해상에 위치하며, 대화탈도·소화탈도·관탈섬 등으로 칭한다 (현해당 역, 『그리운 청산도』, 18쪽).

11) 장한철, 『표해록』, 1770년 12월 25-26일.

낭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항해를 고집하였다.¹²⁾

그러나 기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뱃사공은 그동안 수없이 왕래했던 뱃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신기루’의 체험과 ‘고래’의 출현이었다. 구름이 해를 가리자, 갑자기 눈앞에 ‘重雲樓閣’이 나타나더니, 어느새 ‘萬堞層城’으로 변하고, 잠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또 동쪽 물결 속에서 우뚝 솟아오르는 물체의 머리와 꼬리는 물속에 있고, 등마루만 반쯤 떠있는데, 길이가 서른 발은 넘어 보였다. 즉 사공은 뱃전에서 난생 처음 ‘고래’를 만난 것이다. 큰고래가 몸을 뒤척이면서 내뿜는 물은 비처럼 쏟아졌고, 물결은 덩달아 치솟아 올라 뱃사람들을 긴장시켰다.¹³⁾ 연이어 ‘먹장 같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2. 鷺魚島 근해에서 遭難

1770년 12월 25일 저녁, 제주 상선은 鷺魚島(필자:所安島 근해) 앞바다에 이르렀다. 노어도에서 육지까지는 70리 거리였다. 이곳은 西海 險路 중의 하나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배가 파선되는 지점이었다. 그리하여 뱃사공은 항해를 중단하고, 배를 노어도 해안에 정박하기 위해 접안을 시도했다. 그러나 제주 상선의 닻은 돌만 매달려 있을 뿐 三指가 없었기 때문에 접안하지 못하고 돌풍에 밀려 바다 밖으로 떠내려갔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더욱 강해져 뱃사람들은 이제 배 멀미로 인해 정신을 잃었으며, 선상 위로 바닷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1770년 12월 26일 아침, 배는 바다에 떠 있었다. 장한철은 지남철로 풍향을 추적하여 현재의 위치를 가늠해보았다. 장한철은 어젯밤부터 불어왔던 바람의 방향이 처음에 東風이었다가 조금 후에 그치고, 다시 東北風이 일어나 배가 바람을 따라 서남쪽 큰 바다로 흘러갔으며, 다시 北風이 심하게 일어나 배가 쓴살같이 달려갔던 기억을 더듬었다. 장한철은 ‘東風→東北風→北風’ 등으로 바뀌는 풍향을 추적한 결과 제주 상선이 곧 유구국에 당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2) 장한철, 『표해록』, 1770년 12월 25일.

13) 장한철, 『표해록』, 1770년 12월 25-26일.

이러한 추론은 일찍이 장한철이 野話에서 읽은 기억을 토대로 추정된 것이었다. 野話에 따르면, ‘白海→黑海→赤海를 건너 유구국에 도달하는데, 그 거리가 몇 천리 밖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였다. 장한철이 이토록 野話의 기록을 확신하는 이유는 2가지 정황 때문이었다. 하나는 15세기 해남사람 崔簿가 쓴 『표해록』에서 본 ‘白海’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한철이 제주도 한라산 등정 때 직접 경험한 ‘白沙汀’에 대한 기억이었다. 즉 최부는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여 유구국 해역을 경유, 중국 절강성에 표착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부는 “바다에서 표류할 때 白海를 지나가니, 유구국이 멀리 바라보였다. 그러나 때마침 동풍이 불어 배를 유구국에 정박할 수 없었다.”라고 기술하였다. 그런가하면 장한철은 기축년(필자:1769년)에 한라산을 등정하였는데, 남녘 하늘의 구름이 걷히면서 바다 저쪽에 선연한 줄기가 띠처럼 형성되는 것을 보고 ‘白沙汀’이라 여겼다. 그런데 훗날 최부의 『표해록』을 보면서 자신이 한라산 등정 때 보았던 ‘흰모래’가 곧 ‘白海’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장한철은 장기 표류에 대비하였다. 장한철은 바닷물의 흐름과 빛깔에 유의하면서 선박의 위치와 방향을 추적하는 한편 제주 상선에 남아있는 식수와 땀감, 식량 등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장한철은 빗물과 눈을 모아 물통에 저장한 다음, 그 물로 밥을 지어 먹었다. 어느덧 장한철은 뱃사공을 대신하여 표류선을 진두지휘하였다.

3. 琉球國 無人島에 漂着

1770년 12월 27일, 제주 상선은 바람을 따라 흘러가고 있을 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문득 장한철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었다. 또 남쪽 하늘에 떠 있는 南極 老人星을 발견하였다. 장한철은 지남철을 이용하여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즉 丁方에 노인성이 있고, 배가 正南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곧 유구국의 경계에 이르렀음을 직감하였다. 왜냐하면 장한철이 일찍이 여러 나라 地圖를 열람한 바 있었는데, 탐라국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東北에 일본의 對馬島, 正東에 一岐島, 東南에 女人國¹⁴⁾, 正南에 크고 작은 琉球國의 부속도서, 西南에 安南國·暹羅·占城·滿刺加¹⁵⁾ 등 海島諸國의

14) 女人國: 일본 동남해에 입지한 八丈島로 추정(현해당 역, 『그리운 청산도』, 29쪽).

인문환경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⁶⁾

한편 장한철은 표류민들이 허리에 차고 있던 호패를 바다에 던져 그 흔적을 없애도록 하였다. 그것은 호패로 인해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오히려 위험에 처해질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장한철은 1611년(광해군 3) 제주도에서 발생한 ‘유구국 태자 살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한철이 뱃사람들에게 들려준 유구국 태자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유구와 조선은 서로 사이 좋게 지냈다. 그래서 유구 사신이 오면 昇平館에 배를 정박하도록 하였다. …… 海路가 너무 멀어서 빈번하지 않았지만, 사신들이 왕래하였다. 그런데 광해군 신해년(필자:1611년)에 유구국 태자가 바람을 따라 제주도에 당도하였다. 이 때 제주목사가 노략질하러 온 도적이라 하여 배를 불태우고 재화와 보물을 빼앗았다. 이로부터 유구국과 조선이 絶和했다고 한다. 유구국 사람들이 우리가 제주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겠는가?¹⁷⁾

장한철은 뱃사람들에게 조선국과 유구국의 관계를 설명하고, 즉시 호패를 소각하도록 하였다.¹⁸⁾ 그런데 장한철이 뱃사람들에게 들려준 유구국 표류사건에서 오류가 발견된다. 위에서 장한철이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과 유구국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예컨대 15세기 유구국 친선사절단이 무려 50여 차례 조선을 방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조선과 유구국 간의 외교관계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이다. 즉 1609년(광해군 1)에 일본 薩摩藩이 유구국을 침략하여 속국으로 만들면서 급격히 변하였다. 즉 유구국이 사츠마의 통제아래 놓이면서 모든 외교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과 유구국, 중국과 유구국은 표류민 송환과 같은 비공적인 절차를 통해 국제관계를 지속하였다.¹⁹⁾

그런데 장한철이 언급한 ‘1611년 유구국 태자사건’은 조선정부의 관찬기록

15) 安南國: 베트남; 暹羅: 태국; 占城: 인도차이나 남동에 위치한 참족의 나라; 滿刺加: 말레이반도 서남쪽에 입지(현해당 역, 『그리운 청산도』, 30쪽).

16) 장한철, 『표해록』, 1770년 12월 26일.

17) 장한철, 『표해록』, 1770년 12월 26일.

18) 장한철, 『표해록』, 1770년 12월 27일.

19) 김경옥, 「15~19세기 琉球人의 朝鮮 漂着과 送還 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2012), 114-118쪽.

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한철이 알고 있던 ‘유구국 태자사건’은 당시 ‘안남국 세자사건’으로 전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1611~1612년 제주목에서 발생한 외국인 피살사건 관련 조선정부의 기록이다.

A-1) 사헌부가 아뢰기를, “臣들이 제주목사 李箕賓의 장계를 살펴보니, 제주 판관 文希賢과 대정현감 楊秀津 등이 賊船과 더불어 서로 싸우면서 鎭뒀다가 敗한 정상이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였습니다. 이기빈은 主將으로 있었으니 그 실상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사망한 군병과 유실된 기계는 조금도 거론하지 않고, 도리어 중국 商船이라느니 중국인처럼 생겼다느니 하는 등의 말로 난잡하게 엮어서 죄를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변사에서 복계한 글에 의하면, ‘적을 뒤쫓아 갔다가 잡지 못한 것은 兵家에 흔히 있는 일이다.’고 하면서 끝내 추고하여 諸將의 죄를 단정하였습니다. 만약 이웃의 적이 이 일을 듣게 되면, 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만일 드러나는 대로 통렬히 다스리지 않을 경우, 장차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이니, 문희현·양수진, 그리고 助防將 金禮男을 모두 잡아다가 국문하도록 명하시고, 이기빈은 파직시킨 뒤 추고소서.²⁰⁾

A-2) 사헌부의 보고에 “전 제주목사 李箕賓과 전 판관 文希賢이 작년에 왜적을 잡은 일로 공을 논한 장계에 따라 이미 賞典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였는데, ‘모두 南京 사람들과 安南의 장사치들이 물화를 신고 표류한 것’이라 하였다. 또 ‘그 배의 체도가 매우 높고 커서 배 하나에 으레 10여 개의 돛대를 세운 것이 왜구의 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기빈과 문희현 등은 처음에 표류민들을 예우하여 여러 날 접대하다가 배에 가득 실려 있는 금은보화를 보고 도리어 재물에 욕심이 생겨 표류민을 모두 죽이고 그 물화를 몰수하였는데, 수백 명의 무고한 인명을 죽이고 그 흔적을 없애려고 그 배까지 불태우고 끝내 왜구를 잡았다고 말을 꾸며서 거짓으로 조정에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국가의 사대교린하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공과 재물에 욕심이 나서 제멋대로 속이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앞으로의 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들이 베껴 보낸 문서는 正本이 아니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方物을 사람을 보내 귀국에 기증한다.’는 등의 말로 보건대 안남인이 일본과 통래한 것은 이미 증거가 될 만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기빈과 문희현 등을 모두 잡아다 엄하게 국문하여 율문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20) 『광해군일기』 권44, 광해군 3년 8월 26일 계사.

하라'고 명하였다.²¹⁾

위에 제시된 사료들을 종합해보면, ①제주목사 이기빈, 제주관관 문희현, 대정현감 양수진, 조방장 김례남 등이 賊船과 전투하였다고 허위로 상부에 보고하였다(A-1), ②제주목사 이기빈, 제주관관 문희현 등이 왜적을 소탕한 공로로 포상받았다(A-2). 그런데 ③제주목사 이기빈, 제주관관 문희현 등이 보고한 적선은 중국인과 안남인이 승선한 상선으로 판명됨에 따라 파직되었다(A-2). 위의 3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1611년 제주도에 표착한 이국인의 선박을 제주 지방관들이 상부에 賊船(혹은 倭賊)이라 거짓으로 보고하고, 이국인을 피살한 사건이었다. 아마도 장한철은 1611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표류 이국선(중국과 안남국 국적) 침탈사건을 유구국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²⁾ 이런 까닭에 장한철은 제주 상선이 유구국에 표착하기 전에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려고 뱃사람들의 호패를 소각시켰던 것이다.

1770년 12월 28일, 마침내 장한철 일행은 유구국의 섬에 표착하였다. 장한철은 표착하자마자 '사람이 살지 않는 無人島'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해안가 모래사장에 고기잡이 어선이 보이지 않았고, 또 해안가 풀밭에 사람들이 왕래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한철 일행이 섬에 들어가보니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있고, 소나무와 잣나무가 많았으며, 기후는 우리나라의 2~3월과 비슷하였다. 또 제주 상선에는 소금, 간장, 쌀 1말, 좁쌀 5~6말 등 표류인 29명이 약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치되어 있었다. 장한철 일행의 무인도 표류생활이 시작되었다.

21) 『광해군일기』 권50, 광해군 4년 2월 10일 을해.

22) 1611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국인 피살사건은 결국 장한철 일행의 제2차 표류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장한철 일행이 유구국 무인도에서 표착하여 표류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안남국 상선이 구조하여 일본으로 동행하게 되었는데, 선상에서 장한철 일행이 제주도 출신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안남국 상선에서 해상으로 쫓겨나는 봉변을 당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고 4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IV. 장한철 일행의 해외체험

1. 琉球國 無人島에서 海賊船의 습격

1770년 12월 29일, 장한철 일행은 유구국 무인도의 산등성으로 올라갔다. 섬은 남북의 길이가 20리, 동서는 약 5리 정도 되어 보였다. 흙은 붉고, 바위와 골짜기에 잡목이 우거져 있었으며, 산짐승이 떼 지어 다녔다. 장한철 일행은 산에서 풀뿌리를 캐고, 해안가에서 전복을 채취하여 표류한 이래로 가장 풍성한 식사를 하였다. 또 산꼭대기에 장작을 쌓아놓고 밤낮으로 연기를 피워 해난구조를 기다렸다.

1770년 12월 30일, 장한철 일행은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 모두 한곳에 모여 있었다. 이 때 뱃사공이 장한철에게 제주도 인근 해역과 제주도 이남의 바다에 대해 질문하였다. 장한철은 野話에서 읽은 경험을 토대로 天下地形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다음은 장한철과 뱃사공의 대화 내용이다.

- B-1) 사공 曰: 탐라의 바다는 바람만 불면 물결이 일어나 배를 침몰시키는데, 이것은 파도가 험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라산 이남을 지나가니, 바람은 비록 맹렬하나, 물결이 험악하지 않고, 파도가 높았지만 배가 위태롭지 않으니,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²³⁾
- 2) 장한철 曰: 천하의 지형은 중국의 경우 평원과 광야가 많고, 그 변두리에 높은 산과 큰 못이 많다. 우리나라 산천은 흐르고 솟음이 몹시 급하여 5리에 산이 하나 있고, 10리에 강이 있을 정도이다. 지맥은 백두산에서 흘러내려 조선의 땅을 형성하였는데, 그 餘脈이 남으로 내려와 所安島·楸子島·濟州島 등이 되고, 동남의 한 갈래가 對馬·薩摩·大阪 등 일본 땅이 되었다. 東萊에서 일본, 南海에서 탐라까지 수 천리가 되고, 큰 바다가 가로 막고 있지만, 바다 밑은 千峰萬壑으로 이루어져 있다. …… 바다 위에 풍파가 일어나면 배를 운항하기가 극히 위험하게 되는 것은 水勢의 충격으로 바다 밑의 봉우리와 골짜기에 진동되어 부딪히기 때문이다. 대저 한라산 이남은 바다 밑이 평평하고 넓어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로 인해 격렬한 물결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물결이 위험하지 않다. …… 나는(필자:장한철) 작은 배를 타고 耽羅海를 항해한 경험이 많은데, 탐라에서 배를 떠나 북쪽 육지를 향하여 갈 때 반쯤 이동

23) 장한철, 『표해록』, 1770년 12월 30일.

하면 서쪽으로 크고 작은 火脫島가 있고, 동쪽으로 餘鼠島와 靑山島가 보인다. 비록 바람이 불지 않고 물결이 잠잠할 때 수세는 반드시 질편하게 흐르다가 치솟고, 빙빙 돌아서 모이는가하면 어느 덧 흐르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선박들이 모두 위험하다. 이것은 물밀의 봉우리와 골짜기가 격렬한 물결을 일으키는 증거이다. 한라산을 지나 남쪽으로 가면서 사방을 돌아보면 섬이 한 점도 없는데, 수세는 그렇게 險急하지 않으니, 이것은 물밀이 평평하게 넓어서 봉우리나 골짜기가 격렬한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증거이다.²⁴⁾

위의 대화에서 보듯이, 장한철은 천하 지형에 대한 인식,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북쪽(필자:조선의 육지)과 남쪽(필자:유구열도) 뱃길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또 장한철의 지식정보는 모두 野話를 통해 보고 들은 것이었다. 그러나 장한철은 옛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구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가 직접 제주도 인근 뱃길을 왕래하면서 터득한 바 있는 체험을 상호 비교하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위의 사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주도 → 화탈도 → 여서도 → 청산도>에 이르는 뱃길은 바로 장한철 일행이 처음 제주항을 출발하여 북쪽의 육지를 향하여 택한 직선항로였다.²⁵⁾

1771년 1월 1일, 장한철 일행은 유구국 무인도에서 새해를 맞이하였다. 장한철 일행은 이국땅에서의 서러운 신세를 ‘웃놀이’를 하면서 달래고 있었다. 이 때 장한철이 이르기를 ‘지방이 50리만 되면 군신과 신하가 있는데, 이 섬은 둘레가 10여리, 산과 바다에 산물이 풍부하고, 경작할 토지가 있는데, 왜 漁戶와 水村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까닭은 해적선의 출현으로 일단락되었다.

대낮이 되었을 때 동쪽에서 홀연히 돛대가 나타났다. 장한철 일행은 연기를 피우고 언덕 위로 올라가 竹旗를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였다. 마침내 선박 1척이 무인도에 도착하였다. 배에서 내려선 사람들은 머리에 푸른 수건을 동여매

24) 장한철, 『표해록』, 1770년 12월 30일.

25) 1771년 12월 25일 장한철 일행은 소안도 인근 노어도 해상에서 1차 표류하였고, 1771년 1월 2일에 장한철 일행이 표착지인 유구국 무인도에서 안남국 商船에 의해 구조되었다가 안남 상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하선하여 다시 2차 항해를 시작하여 또다시 2차 표류지점 역시 소안도와 노어도 인근 해상이었다. 결국 장한철 일행이 2차로 표착한 지점은 청산도였다. 이러한 정황은 장한철의 天下地形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해준다 하겠다.

고, 검은 색 長衣를 입었으며, 허리에 長劍과 短劍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倭人들이었다. 장한철이 필답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다. 먼저 장한철은 조선 사람들인데 표류되었으니, 구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들은 ‘南海佛將’이라 칭하며, 西域으로 가는 길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장한철 일행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보물을 찾더니, 식량과 옷을 그대로 남겨둔 채 섬을 떠났다. 장한철 일행은 해난구조는커녕 오히려 일본 해적들에게 약탈당한 것이다.

2. 安南國 商船의 海難救助

1771년 1월 2일, 장한철 일행은 서남쪽으로부터 다가오는 배 한 척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배의 크기가 하늘을 가리는 산처럼 보였다. 그 배는 동북쪽으로 항해중이었다. 장한철 일행이 깃발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자, 그 배가 무인도에 닿을 내렸다. 그들은 붉은 빛 바탕의 畫布로 머리를 싸매거나 혹은 圓巾을 쓰고 있었으며, 소매가 좁은 초록 빛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으로 장사 나가는 安南國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본래 명나라 사람들로,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하자, 安南國으로 피난가서 정착한 이주민들이었다. 그들은 콩을 실고 일본으로 장사 나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安南國 상인들은 장한철 일행을 일본까지 데려다 주기로 약속하고 승선을 허용하였다.

1771년 1월 3일, 장한철 일행은 安南國 사람들과 필답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 때 安南인 方有立이 靑黎國 香瀉島²⁶⁾ 朝鮮村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청나라 향사도는 廣東의 南海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명나라 사람들이 피난생활을 하는 섬으로, 그곳에 朝鮮村이 있고, 4대째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 金大坤 일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²⁷⁾ 그런가하면 安南國 상인들은 장한철 일행에게 조선에 명나라 遺民이 얼마나 있는지? 청나라에 조공을 보내고 있는지? 조선의 산천·풍토·의관·문물 등은 어떠한지? 다양하게 질문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한철 일행은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安南國 상선의 내부 구조를 돌아보며 체험하였다. 安南國 상선은 모두 4층으로 구조되어 있었다. 맨 위 상층에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房屋이 연이어 있고, 船腹에는 파와 채소를 심

26) 원문에 香瀉島로 표기되어 있다. 오늘날 澳門島(마카오)으로 추정된다(현해당 역, 『그리운 청산도』, 53쪽).

27) 장한철, 『표해록』, 1771년 1월 4일.

어둔 밤이 있었으며,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선복 3층에는 百物과 器皿이 쌓여있고, 배의 맨 밑바닥에는 바닷물이 유입하는 통로가 있고, 그 위에 장한철 일행이 타고 온 제주도 商船과 安南國 상선의 從船이 떠 있었다.

그런데 장한철 일행이 安南國 상선에 승선한 지 만 4일째 되던 날에 동북쪽 방향으로 큰 산이 보였다. 바로 제주도 한라산이었다. 장한철 일행은 고향 산천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표류민들의 고향이 제주도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安南國 상인들 간에 고성(高城)이 오가면서 싸움이 벌어졌다. 이 때 중국인 林遵이 장한철에게 필답으로 그 내막을 알려주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 탐라왕이 安南國 세자를 죽였으므로, 安南 상인들이 상공(上公: 장한철)이 탐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 칼로 베어 원수를 갚으려하는 것을 우리들이 겨우 달래 그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일은 옳지 않다고 하니, 이로써 길을 나누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²⁸⁾

이야기를 전해들은 장한철은 ‘1611년 제주도 이국인 표류사건’을 떠올렸고, 당시 제주도 표류민이 유구국 태자가 아니라 安南國 세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²⁹⁾ 安南 상인들은 끝내 장한철 일행에게 당장 하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장한철 일행은 安南國 상인들에 의해 무인도에서 구조되었다가, 또 다시 해상으로 쫓겨나 제2차 표류를 시작하였다.

3. 朝鮮 靑山島 주민들의 표류민 구호활동

1771년 1월 6일, 장한철 일행은 제주도 한라산 서북쪽 지점에서 남풍에 밀려 흑산도 방면으로 흘러갔다. 급기야 제주 상선은 지난해 12월 25일에 표류했던 지점인 노어도 서북쪽 해상에 당도하였다. 이 때 뱃사공이 이르기를, “노어도 북쪽 해상은 모두 亂嶼·險岸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배가 파선되는데, 그 이유는 바윗돌이 칼날처럼 솟아있고, 파도가 몹시 험악하기 때문

28) 장한철, 『표해록』, 1771년 1월 5일.

29) 1611년 이국인들의 제주도 표착 사건은 본고 2장 3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입니다. 이제 바람은 강하게 불어 바다를 뒤집고, 성난 파도는 하늘에 솟구치는데, 배가 바로 그 지점에 들어와 있으니 살아남을 방도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 때 강진사람 김칠백이 “저 섬은 傘嶼인데, 사면이 높은 바위로 되어 있고, 석벽은 칼날 같아서 원숭이도 그것을 붙잡고 오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헤엄쳐서 그곳에 당도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응수하였다.³⁰⁾ 이 말을 들은 뱃사람들이 모두 정신을 잃었다.

제주 상선은 어느덧 파도에 밀려 所安島와 茅島 사이의 돌섬을 통과하여 靑山島 해역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청산도에 표착한 일행은 모두 8명뿐이었다. 생존자는 沙工 이창성, 格軍 유창도·김순기, 陸商 김칠백, 商人 김재완·양윤하, 그리고 장한철과 김서일 등이었다. 안남국 상선에서 쫓겨날 때만 하더라도 모두 29명이었는데, 청산도까지 표류하는 동안 무려 21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청산도 주민들은 屯長의 지휘 아래 장한철 일행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간병을 해주었다. 또 바다에서 사망한 제주 표류민 21명의 제문을 지어 냈을 위로하였다.³¹⁾

1771년 1월 13일, 순풍이 불어오자, 제주 표류민들은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이에 청산도 주민들은 쌀과 돈, 갓과 氈衣, 그리고 미투리 등을 표류민에게 제공해주었다. 장한철 일행은 드디어 靑山島를 출항하여 제주도로 향하였다. 다음 <표 3>은 청산도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표류민들의 여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청산도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여정

년. 월. 일.	날씨	바람	출발	도착	비고
1771. 1. 13.	맑음	순풍	靑山島	薪智島	• 황혼 무렵 신지도에 도착 • 포구에서 10리 떨어진 堂村으로 이동, 民家에서 1박
1771. 1. 14.	맑음		薪智島	古今島	• 고금도 포구에서 20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다시 승선 • 강진 마도진 客店에서 1박
			古今島	馬島嶼	
1771. 1. 15.	비		馬島嶼	南塘浦	• 마도진에서 약 50리 떨어진 남당포로 이동.

30) 장한철, 『표해록』, 1771년 1월 6일.

31) 장한철, 『표해록』, 1771년 1월 9일.

					중도에 비가 내려 七陽山 주변 民家에서 체류, 다시 이동하여 밤늦게 남당포에 도착
1771. 1. 16.	맑음	북풍	南塘浦	所安島 →濟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표류민 중 7명은 소안도를 경유하여 제주도로 출발 • 장한철은 남당포에서 제주사람 김창현과 함께 서울로 상경하기로 결정
1771. 1. 19.			康津	漢陽	• 장한철 한양으로 출발
1771. 2. 3.			漢陽	전라도	• 장한철 과거에 응시, 낙방, 고향으로 출발
1771. 5. 8.			(육지)	제주도	• 고향 제주에 도착하여 가족과 상봉

위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주 표류민들은 청산도를 출발하여 인접한 薪智島와 古今島 바다를 건너 다음, 강진 馬島鎭에 당도하였다. 마도진에서 약 50리를 걸어서 南塘浦에 도착한 다음, 이곳에서 배를 타고 소안도를 경유하여 제주도로 향하였다. 반면 장한철은 지난해 제주도를 출항했던 목적이 바로 과거 응시였기 때문에 강진 남당포에서 곧장 한양으로 출발하였다. 장한철은 과거에 응시한 후 동년 5월에 고향 제주도로 돌아와 『표해록』을 저술하였다.

V. 맺음말

이 글은 18세기 제주도 사람 장한철의 해외체험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분석자료는 장한철의 『표해록』이다.

장한철은 조선 영조 때 북제주군 애월면 애월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770년 10월 제주도 鄉試에서 장원하여 한양에서 실시하는 進士試에 응시하기로 결심하였다. 1770년 12월 장한철은 육지로 나가는 商船에 승선하였다. 이 배는 육지와 제주를 오가며 장사하는 商賈船으로, 장한철을 비롯하여 총 29명이 승선하였다.

제주도 상선이 추자도 인근 해역을 지날 즈음에 날씨가 흐려졌다. 그러나 뱃사공은 추자도를 우회하지 않고, 곧장 직항로를 따라 육지로 향하였다. 그런데 제주 상선이 소안도~노어도 해역에 이르렀을 때 폭풍으로 인해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었다. 이에 뱃사공은 노어도 해안에 정박하기 위해 접안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주 상선은 섬에 닿을 내리지 못하고, 돌풍에 밀려 조난되고 말았다.

장한철 일행은 바다에서 표류한 지 4일 만에 작은 섬에 표착하였다. 그 섬은 유구국의 무인도였다. 무인도의 기후는 우리나라의 2~3월을 닮았고, 산에는 잡목이 우거져 있었으며, 갯가에 해산물이 풍부하였다. 장한철 일행은 산에서 풀뿌리를 캐고, 해안가에서 전복을 채취하여 표류생활을 하는 한편 연기를 피워 해난구조를 기다렸다.

1771년 1월, 장한철 일행은 이국땅에서 새해를 맞이하였다. 정오가 되었을 때 동쪽으로부터 배 한척이 나타났다. 장한철 일행은 언덕위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하였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南海佛將’이라 부르는 해적들로, 장한철 일행을 약탈한 다음 섬을 떠났다. 이튿날, 장한철 일행은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향해하는 또 다른 선박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일본으로 장사 나가는 안남국 상선으로, 승선한 상인들은 안남인과 중국인들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들은 명나라 遺民들로, 청나라가 명을 정복한 이후 안남국으로 피난가서 정착한 이주민들이었다. 안남국 상인들은 장한철 일행을 일본으로 데려다주기로 약속하고 승선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일본으로 향하던 안남국 상선이 제주 앞바다에 이르자, 장한철 일행은 고향 산천을 바라보고 울음을 터트리며 말했다. 이 과정에서 표류민들의 고향이 제주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안남국 상인들이 크게 분노하였다. 그 이유는 과거 탐라국 사람들이 제주에 표착한 안남국 세자를 피살한 사건 때문이었다. 안남국 상인들은 장한철 일행을 원수라 부르며 죽이려 덤벼들었고, 겨우 중국인들의 중재로 수습되었다. 그러나 안남국 상인들은 끝내 장한철 일행에게 하선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장한철 일행은 안남국 상선에서 쫓겨나 다시 해상에 표류되었다. 장한철 일행이 2차로 표착한 지점은 조선의 청산도 해안이었다. 생존자는 장한철을 비롯하여 모두 8명뿐이었다. 안남국 상선에서 하선하여 청산도에 이르는 동안 무려 21명이 사망한 것이다. 이후 장한철 일행은 1771년 5월에 고향 제주도로 귀환하였다.

국문초록

18세기 張漢喆의 『漂海錄』을 통해 본 海外體驗

김 경 옥

이 글은 장한철의 『표해록』을 분석하여 ‘항해와 표류’, ‘해난구조’, ‘표착지에서의 생활’ 등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장한철의 호는 鹿潭, 본관은 海州이다. 그는 해주장씨 제주도 入島祖 張一就의 7세손으로, 북제주군 애월리에서 張次房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仲父인 雙梧堂 張重房의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1770년 가을, 장한철은 鄉試에서 장원을 하였다. 이 때 제주도 父老들이 한양에서 실시하는 會試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였고, 제주도 3문 관아에서는 과거 응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었다. 이에 장한철은 金瑞一과 함께 進士試에 응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770년 12월 25일 장한철과 김서일은 육지로 출항하는 濟州商賈船에 승선하였다. 당시 상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29명이었다.

장한철의 『표해록』은 1770년 12월 25일부터 1771년 5월 8일까지 제주도 사람들이 표류하게 된 전말을 기록한 글이다. 장한철의 『표해록』은 두 차례 작성되었다. 하나는 장한철의 1차 표착지인 琉球國 虎山島에서 작성한 것으로, 일명 『漂海日錄』이라 칭한다. 다른 하나는 장한철이 고향 제주도로 귀환하여 작성한 『표해록』이다. 현전하는 『표해록』은 1771년 5월, 장한철이 제주도에서 저술한 것으로 전해온다. 장한철의 『표해록』은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있다. 즉 ①出港目的, ②航海·漂流·漂着, ③海難救助, ④歸還 등이다. 장한철은 표류과정을 일기체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표해록』의 내용은 날씨(흐림과 맑음), 바람(방향과 속도), 파도(높이와 빛깔), 海路(水流), 선박(항해), 표류민(상태) 등 표류선의 풍경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장한철의 해양지식(동아시아 海島諸國), 항해체험(海路, 風向, 指南鐵, 老人星), 표류체험(무인도, 해적, 안남국 상인, 청산도 주민) 등이다. 또 공간적인 측면으로는 조선의 제주도에서 유구국의 호산도까지의 표류과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지금까지 장한철의 『표해록』 연구는 주로 국문학 전공자들에 의해 검토되어왔다. 그 결과 표해록이 ‘해양문학, 서지학, 설화집, 풍류기담’ 등 다소 제한

적인 범주에서 연구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장한철의 『표해록』에는 ‘역사·인물·선박·해로·항해술·천하관’, ‘동아시아 海島諸國’, 그리고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섬 주민들의 해양인식’ 등 18세기 제주도 선비의 해박한 지식이 담겨있다. 따라서 ‘표류·표류민·표해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에 의해 다각도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표류, 표해록, 장한철, 제주도, 청산도, 호산도, 유구국, 안남국



中文要約

以18世纪张漢喆的『漂海录』考察海外体验

金京玉

这篇文章分析张漢喆的『漂海录』，以‘航海和漂流’、‘海难救援’、‘在停留地的生活’等的他在海外的体验中心考察。

张漢喆的号是鹿潭，原籍在海州。他身为海州张氏一家里第一个移居济州岛的张一就的第六代后裔张次房的儿子，在北济州郡涯月里出生。他从小父母早亡，在二伯父的双梧堂张重房的膝下长大。在1770年秋天，张漢喆在乡试考中状元。这时周遭的父老们劝他应考会试，并济州岛的三所官府也援助所经费。因此，张漢喆与金瑞一决定应考进士试。于是，在1770年12月25日，张漢喆与金瑞一搭乘往陆地的商贾船，当时一起上船人数为总共29名。

『漂海录』是从1770年12月25日到1771年5月8日的记录，作家张漢喆是济州岛人，有一天他为了科举赶考去汉阳，途中遇到暴风雨而漂流，这是记载那事件的本末。

其实张漢喆的『漂海录』有两次编写，一个是他在第一次停留地的琉球国虎山岛写的，称为『漂海日记』。另一个是他后来归还济州岛后写的，称为『漂海录』。依照学说，现有的『漂海录』是在1771年5月著述的。『漂海录』可大分成为4个主题。亦即①离港目的，②航海·漂流·停留，③海难救援，④归还。他用写日记的方式记录漂流的过程。在『漂海录』所记载的内容如下；天气（云天和晴天），海风（风向和风速），浪潮（波高和颜色），海路（海流），船舶（航海），漂流民（状态）等的漂流船的

风景。特别令人瞩目的是他对海洋的知识（东亚的海岛诸国），航海体验（海路，风向，罗盘，寿星），漂流体验（无人岛，海贼，安南国商人，青山岛岛民）的内容。还有以空间移动的角度来详细记述从朝鲜济州岛到琉球国虎山岛的整个漂流过程。

至今对『漂海录』的研究是以专业韩国文学者为中心。结果，专家们认为『漂海录』的研究局限于‘海洋文学，书志学，故事集，风流奇谈’等的范畴里。但，其实通过『漂海录』可见活在18世纪济州岛的一个儒生的渊博知识，其内容包含‘历史·人物·船舶·海路·航海术·世界观’、‘东亚的海岛诸国’还有‘以渔业为生的岛民对海洋地里的认

识’等。因此，对‘漂流·漂流民·漂海录’的研究需要更多不同方面的专家的检讨。

<Key words>

漂流, 漂海录, 张汉喆, 济州岛, 青山岛, 虎山岛, 琉球国, 安南国

K C I

참고문헌

- 張漢喆, 『漂海錄』, 筆寫本, 刊寫者(年)未詳, 國立中央圖書館 古267-2.
- 김경옥, 「15~19세기 琉球人의 朝鮮 漂着과 送還 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2012).
- 김봉옥·김지홍 역, 『옛 제주인의 표해록』(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1).
- 김지홍 역, 『표해록』(지식을 만드는 지식클래식, 2009).
- 徐仁錫, 「장한철의 표해록과 수필의 서사적 성격」, 『국어교육』 67(1989).
- 宋昌彬 역, 『漂海錄』(日本:新幹社, 1990).
- 吳貽錫, 『한문기행연구 - 장한철의 표해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4).
- 윤일수, 「만강홍에 나타난 장한철 표류담의 계승과 변이」 I, 『한민족어문학』 28(1995).
- 尹致富, 『한국해양문학연구 - 표해류 작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2).
- _____, 「장한철의 표해록과 한문단편의 관련양상」, 『고소설연구』 2-1(1996).
- 鄭 民 역,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휴머니스트, 2008).
- 鄭炳昱 역, 『표해록』(범우사, 1979).
- 鄭炳昱, 「표해록 - 원문과 해제」, 『인문과학』 6(1961).
- 진선희, 『張漢喆 『漂海錄』의 多聲性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1).
- 崔來沃, 「표해록 연구」, 『비교민속학』 10(1993).
- 한창훈·한주연, 『제주선비 구사일생 표류기』(한겨레아이들, 2008).
- 懸解堂 역, 『그리운 청산도』(한국학술정보, 2006).